“불교 실천” 남해불교봉사단 최초 창립

남해군 불교봉사단 7월 18일 창립법회

53명 창립 봉사단원 모여 소외 이웃 위한 나눔으로 순수봉사단으로 활동계획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군불교봉사단이 7월 18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남해군불교봉사단’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봉사단이 출범해 눈길을 끈다. 경남 남해군에서 불교 봉사단이 최초로 창립됐다.

남해군불교봉사단(단장 이금숙)이 7월 18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남해군불교봉사단’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남해군불교봉사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비실천에 앞장서고 신행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로 정토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이다. 남해군불교봉사단은 먼저 ‘도피안(到彼岸)’이라 이름 붙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도피안 프로그램은 ‘소외 이웃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장애인 및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보살행을 목적으로 두었다.

도피안 프로그램을 위해 남해군불교봉사단은 세탁차를 운영하고 찐빵 나눔 등 소소한 즐거움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법회와 차 봉사, 알뜰 나눔 장터, 동지 팥죽 등 불교 포교를 위한 활동도 진행한다.

이금숙 남해불교봉사단 초대 단장은 “신행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무엇보다 실천하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며 “남해에 불교봉사단이 있기를 바랐는데 단원들과 합심해서 창립법회를 봉행해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해군불교봉사단은 화방사 주지 선문 스님과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며 봉사단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후 5월 30일에 화방사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수호 프로그램에 15명의 불자들이 모였고 봉사단 필요성을 함께 공감, 구체적으로 의견 모았다. 6월 6일 봉사단 설립을 위한 정관을 확정하고 창립법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6월 10일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봉사단을 모집했으며 창립 단원 53명이 모집됐다. 6월 20일 정관을 최종 정립하고 단장과 부단장을 선임했다.

남해군불교봉사단 창립을 위해 화방사 선문 스님의 지도와 격려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문 스님은 “불교의 뿌리가 남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교봉사단이 없다는 것이 항상 아쉬웠다”며 “포교를 위해 창립하게 되었으며 불자들의 깨달음을 위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봉사하는 삶이라 생각한다. 불자들이 복을 짓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봉사단 창립을 축하하며 내빈들의 축사와 격려도 이어졌다.

보리암 주지 성조 스님은 “무더운 날씨에도 보살행 실천을 위한 불교봉사단 창립법회가 무엇보다 뿌듯하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 지금 남해군민들에게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해불교사암연합회장 성각 스님은 “봉사단 창립을 축하하며 대승불교의 가치를 담은 봉사단 활동을 무엇보다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장충남 남해 군수는 “‘깨달음은 친절이다’라고 생각한다”며 “봉사단으로 인해 남해가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립법회에는 보리암 주지 성조 스님, 남해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각 스님, 운대암 주지 도응 스님, 화방사 주지 선문 스님, 용문사 주지 지각 스님, 낙가사 주지 성준 스님, 장충남 남해군수, 이주흥 남해군의회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범어사 대웅전 장엄 세계 펼쳐지다

금정총림 포교사회, 7월 18일 노재학 작가 강연 열어



범어사(주지 경선) 금정총림 포교사회는 7월 18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범어사 대웅전의 장엄세계’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금정총림 포교사회 일요법회팀이 주관했으며 특강을 통해 범어사가 가진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불교 건축의 상징과 특색을 교육해 포교사로 활동하는 불자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강연에는 금정총림 포교사회 일요법회 회원들과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사찰 해설사 3기 생들이 동참했다.

노재학 작가는 먼저 대웅전의 특징을 설명하며 법당의 모범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노 작가는 “범어사 대웅전은 한국 전통 사찰 법당 가운데 고전주의 경향을 가장 많이 보여준다”며 “법당에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아주 예술적으로 표현했고 모범적인 형태로 전형화시켰다”고 정의했다. 한편, 노재학 작가의 특별강연이 한차례 더 이어진다.

금정총림 포교사회 일요법회팀은 8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범어사 팔상독성 나한전의 장엄세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정사 수진 스님, 동명대 장학금 전달

인재불사 위해 2000만원 후원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동명대에 장학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수진 스님은 7월 21일 동명대 동명관 4층 세계선센터에서 ‘동명대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및 불교동아리 로투스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수진 스님과 장재진 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재학생 등 10여 명이 동참했다.

수진 스님은 “어려운 시기 학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장재진 교수는 “매년 장학금을 후원하는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스님은 인재불사를 위해 항상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지하고 후원해오셨다. 불교동아리 성장과 학생들을 위해 잘 회향할 것이다”고 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운곡 스님 선명서화 전시회 수익금 기부

선명서화 작품으로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운곡 스님이 전시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기부했다.

부산 을파소 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은 7월 21일 해운대구청에서 ‘선명서화 전시 수익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운곡 스님은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에게 전시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금은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운곡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 가정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이런 가운데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고 선명서화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영불교계, “미얀마 민주화 지지”

7월 20일 미얀마 상황 공유 및 민주화단체 후원금 전달



통영불교사암연합회는 7월 20일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통영시민 강연회’를 개최했다.

경남 통영시 불교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민주 항쟁에 대한 강연을 개최했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목)는 7월 20일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통영시민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통영불교사암연합회와 통영불교거사림, (사)나누우리, 보현사 신도회, 용화사 신도회, 통영생태문화시민학교, 통영소상공인회 등 많은 단체가 공동 주최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강연에는 통영사암연합회 회장 종목 스님, 보현사 묵원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쿳따우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고문, 권현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무국장, 안휘성 거사림회 회장, 심순자 용화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강연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획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50인 미만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쿳따우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고문이 담당했으며 ‘미얀마 민주화는 세계평화’란 주제로 미얀마의 현재 상황을 공유했다.

쿳따우 고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위한 염원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며 “자유와 인권을 보호받는 나라에서 살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얀마에서 확산된 코로나 상황을 공유하며 열악한 의료 환경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묵원 스님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 불교계는 이날 미얀마 민주화를 기원하며 후원금 300만 원을 후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비전사, 광주불교회관 기금 전달

비전사 1000만원, 신도모연 2916만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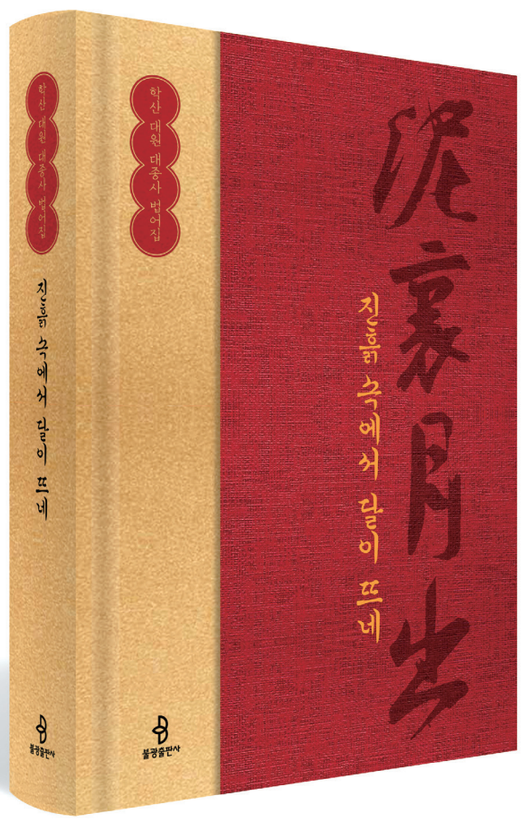


광주 광산구 비전사(주지 보혜)는 7월 16일 대웅전에서 광주불교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찰에서 마련한 1000만 원과 신도들이 모연한 2916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보혜 스님과 비전사 신도회,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광주불교회관건립 추진단장 도계 스님, 관음사 주지 소운 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 등 광주불교연합회 임원스님들이 참여했다.

보혜 스님은 “광주에서 불교회관은 미래 우리들의 후학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이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신도들이 참여를 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더 모연을 진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계 스님은 “모연에 참여해 주신 주지스님과 신도회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의 살아 있는 큰 스승

학산 대원 대종사의 삶과 수행
우리 마음의 어둠을 단박에 끊어내다!

고암, 전강, 성철, 향곡, 경봉 스님 등
근현대 고승과 나눈 불꽃 튀는 법거량의 기록!
그리고 현대인의 막힌 삶을 뚫는 시원한 일갈!

열네 살 출가 후 이어온 70여 년의 구도!
지금은 접하기 힘든 선문답의 진수와 행行으로써 드러난 대선사의 지혜.
그 향기로운 법어를 엮은 우리 시대 진정한 선승의 단 한 권의 책!

“현실에서 (마음) 공부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는 의미도 없고, 어떤 행복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학산 대원 지음
440쪽 | 양장본
29,000원

학산 대원 대종사 鶴山大元大宗師
1956년 출가하여 오로지 구도求道의 길만을 걸어오신 우리 불교 대표 선승.
1986년 계룡산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다시 세울 때까지 제방의 선원을 돌며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 회상에서 정진했다. 그동안의 세월의 흔적이 무색하게 지금도 후학들과 나란히 앉아 용맹정진해 오고 계시는 큰스님은 간화선 수행 가풍의 진작과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하고 있다.



학산 대원 대종사 법어집
진흙 속에서 달이 뜨네
泥裏月出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